

건우와 영희의 이야기

건우와 영희는 지난 1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왔으며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은 그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며, 각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한다.

다른 부부들처럼 건우와 영희도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주로 돈에 관한 것이다. 건우는 밖에서 상근으로 근무한다. 영희는 하루종일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가끔 소소한 부업 일도 한다. 건우는 가정을 다스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 오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희는 건우보다 자신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자신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희는 과거에 때로는 건우에게 말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

최근 건우와 영희는 그들이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건우는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여 편하게 출근도 하고 가족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영희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휴가를 가서 친척도 방문하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함께 재미있는 경험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건우와 영희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골치가 아프지만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 건우와 영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것 같은가?
-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 그들이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준비 자료 제3부 참조)
- 여러분이 건우와 영희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 결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